

300-5-119.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1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

- 1934년 5월 21일 ‘京城共產主義 클럽 組織件’의 報告가 있었는데, 鄭泰植 등 赤色勞動組合 관계자와 李載裕·權榮台·安鍾瑞 등의 關係자가 보고되었다.
- 1934년 5월 17일 金普成에 대한 취조중, 3월 京城帝大 法文學部 助手 鄭泰植의 지도로 赤色勞動組合 세포인 工場 클럽 조직 등의 活動을 했음이 밝혀졌다. 京城 共產主義 클럽에서 발행하는 機關紙 三種 등 秘密出版物을 配布하기 위하여 自宅에 은닉했음을 自白했다. 鄭泰植을 取調中 李載裕와 三宅 교수에게 金普成을 소개 하였다고 했다. 赤色勞動組合을 조직하기 위하여 權榮台와 연락하고 京城共產主義클럽 結成을 準備하며 京城帝大 京城法專 龍谷女學校를 中心으로 한 共產青年 클럽조직과 시내 각 공장을 기초로 한 赤色勞動組合을 結成中이었다. 權榮台는 三宅 教授·安鍾瑞와 協力하여 金普成이 配布한 것과 같은 不穩出版物을 다수 출판, 배포하고 撒布한 것으로 取調를 받았다. 鄭泰植과 李新明·韓六洪·韓成鐸·姜貞信·孟桂淑 등의 證據品을 押收했다. 20일에 差押 내용 1·2·3·4·5건의 차압조서가 작성되어 이 문서철에 수록되어 있다.
- 5월 25일 東大門警察署에서 金普成에 대하여 被疑者 訊問調查가 있었으며, 27일 鄭泰植, 28일 李明新·金月玉·姜近熙, 29일 盧淑行, 30일 姜勇信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동일 李綜玉의 청취서가 작성되었고, 李承義·鄭顯順·崔容達의 피의자 신문조사도 있었다.
- 6월 1일 朴文圭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李綜玉의 2회 청취서 작성이 있었고, 2일 金大容·韓六洪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3일 韓成澤의 신문조사와 차압이 집행되었다. 6월 4일 安秉潤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는데 南致裕 등의 書信·檄文 9편이 이에 수록되어 있고, 梁壽福의 피의자 신문조사도 있었다. 6월 5일 吳南根, 6일 金韓周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申夏植·李任順·李順玉 등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 6월 7일 丁奇鉉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金鍾武의 청취서가 작성되었고, 8일 金夏增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車小榮의 청취서 작성 및 差押이 있었으며, 10일 權榮台·安鍾瑞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